

# 韓半島 新石器人의 墓制와 死後世界觀

李 相 均 \*

## 목 차

- I. 머리말
- II. 신석기시대의 묘제
  - 1. 신석기시대 이전의 개요
  - 2. 신석기시대의 묘제
- III. 신석기시대의 원시신앙과 사후세계관
  - 1. 원시신앙
  - 2. 사후세계관
- IV. 주변국 문화권의 양상
  - 1. 중국의 경우
  - 2. 일본의 경우
- V. 맺음말

## < 요약 >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는 정착생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이 주를 이룬다. 사철 바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활동범위의 공간적 영역이 매우 넓었으며, 죽음으로 인한 묘제의 축조에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新石器人들의 묘제는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동기시대 이후의 다양화되는 묘제와는 다르며, 이 시기에는 地上의 묘제나 얇은 土壤墓가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사후세계관에 대한 양상은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신석기시대에는 피장자를 묻을 때의 머리를 두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장례시에 頭向문제에 대한 의례적, 종교적인 의식은 각자의 유적 내에서 일정한 규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매장방법에 있어서 통영 연대도에서 俯身葬이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한반도 내에서는 仰臥伸展葬이 주류를 이룬다. 셋째, 신석기시대에는 일반적으로 1인씩 묻는 단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合葬의 풍습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 시기에는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다양성에 의해 이미 빈부나 신분, 지위의 高下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신석기시대 中期에 삼촌리유적에서와 같이 이미 火葬의 풍습이 있어 二次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 全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助教授

## I. 머리말

사후세계에 대한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삶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간의 정신 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인간이 죽게 되면 그에 대한 애도의 표현, 시신처리, 매장방법, 제사 등과 관련하여 많은 행위가 행해지며, 그 자체가 社會·文化的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墓制는 死者가 생전에 속해 있던 집단의 매장 풍습, 喪·葬禮儀式은 물론이고 文化·社會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각 묘제는 그 조성방법이나 동원되는 인원 등에서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조성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儀禮的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상·장례 절차 등에 대한 자료는 빈약하여 그 전모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여기에 고고학적인 자료도 遺物이나 遺構에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포된 정보의 질과 양도 상당히 제약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사시에 발견되는 묘제의 특성, 유물의 잔존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교류 및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매장방법, 사후세계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묘제의 조성방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장되는 부장품도 묘제와 관련하여 동시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석기시대에도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生業의 풍부함을 기원하고 각 행사를 주관하고 주술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으며, 여기에 인간이 죽음으로서 死後世界에 대한 각종 표현은 신앙과 더불어 墓制의 葬法에 나타나게 된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는 자료가 빈약한 실정이므로 이 분야의 고찰을 위해서는 墓制와 副葬品 등의 성격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주변국과의 관련성을 더듬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묘제와 사후세계관에 대해 알아보고, 주변국과의 관련 양상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 II. 신석기시대의 묘제

### 1. 신석기시대 이전의 개요

인간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종교와 죽음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것은 유구와 유물로서

발견되고 있다. 구석기시대에도 죽음에 대한 의식이 존재했으나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유적이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지역 덕천 승리산동굴과 평양부근의 역포, 만달리에서 인골의 출토가 알려지고 있고,<sup>1)</sup> 남한의 석회암동굴인 청원 두루봉의 홍수굴에서는 완전한 인골이, 단양 구냥굴, 제천 점말유적에서도 인골이 발견되었다.<sup>2)</sup> 이것이 무덤의 성격을 떠는지는 파악할 길이 없으나 함께 수습된 유물의 성격에서 당시의 종교의식, 사후세계관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공주 석장리유적에서 개의 머리 彫刻이, 제천 점말동굴에서 짐승의 얼굴, 두루봉동굴에서 사람 얼굴이 새겨진 유물이 있다는 보고는<sup>3)</sup> 그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原始信仰과도 결부되어 해석할 수 있겠고, 이러한 신앙은 사후세계와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지역의 東北아시아 지역에서는 中期 구석기시대 이후 무덤이 보고되고 있으나, 역시 그 예가 많지 않다. 시베리아 앙가라강 유역의 後期 구석기시대 마리타유적에서는 주거지의 바닥 밑에서 2구의 小兒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평탄한 돌로 덮여 있었다. 무덤 안에는 赤色 顔料가 뿌려져 있고, 맘모스 상아제의 목걸이, 장신구, 골각기, 석기, 女性像, 水鳥像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여성상은 조상숭배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얼굴의 형태는 현재의 시베리아 주민과 공통되는 몽고로이드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sup>4)</sup> 또한 중국 근교의 周口店 일대의 山頂洞窟에서는 3구의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그 주위에는 赤鐵鑛의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이 유적에서는 부장품인지의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貝殼, 骨針, 이빨에 구멍을 뚫은 장식품 등이 출토되었다.<sup>5)</sup> 日本의 경우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몇 예가 있으나, 그 중에 湯の里4遺蹟에서는 細石刃文化 단계의 자료가 출토되며, 평면 타원형의 墓壙이 발견되었다. 묘광내에서는 石刃石核, 細石刃石核, 석제 玉類가 출토되었으며, 아울러 赤色土壤이 군데군데 산포되어 적색 안료를 뿌린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大分縣 岩戶유적에서

- 
- 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도서출판 새날  
김교경, 1981, 「새로 발견된 만달리 동굴유적」, 『역사과학』4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 『평양부근동굴유적발굴보고』
  - 2)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선사유적 발굴도록』
  - 3) 손보기, 1974, 「제천 점말동굴 발굴 중간보고」, 『한국사연구』11  
이용조, 1980, 『한국선사문화의 연구』, 평민사
  - 4) Klean, R. G., 1971, "The Pleistocene Prehistory of Siberia" Quaternary Research 1  
加藤晉平, 1988, 『日本人はどこから來たか』, 岩波新書
  - 5) 日本對外文化協會, 1988, 『日本人と文化の起源をたずねて』

는 유물 집중 부분의 集石의 아래 부분에 토광이 있고, 그 안에서 치아, 두개골, 사지골 등의 인골과 조개류와 석기류가 발견되고 있다. 인골은 출토위치와 묘광의 형태로 보아 屈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sup>

이와 같이 구석기시대의 무덤의 예는 많지 않지만, 시베리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마리타 유적의 상황에서 본다면, 2구를 묻는 合葬, 赤色 顔料를 뿌리는 장례의식, 인간의 영혼을 날아가게 하는 水鳥像, 그리고 女性像에서 본 조상숭배 의식 등이 이미 구석기시대에도 행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東北아시아 지역에서 구석기시대에도 이미 副葬하는 풍습이 존재하였으며, 死者를 보내기 위한 상·장례 의식이나 절차가 다양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 2. 신석기시대의 묘제

묘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 집단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신석기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묘제는 아직은 조사된 수가 적지만 나름대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묘제는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 규모나 질의 면에 있어서 다양하지 않고 조사된 자료의 축적도 많지 않아 언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묘제와 사후세계관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는 무덤의 종류와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대략 土壙墓(土葬墓), 集石墓, 洞窟墓, 甕棺墓 등이 알려지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그 개요를 파악하여 정리하고자 한다.(표1)

### 1) 土壙墓

토광묘는 시신을 묻을 수 있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서 매장하는 가장 단순한 무덤이며, 일부에서는 土葬墓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토광묘는 북한지역에서는 함북 옥기의 용수동과 송평동, 동해안의 월포리, 남해안의 부산 범방패총, 경남의 연대도, 옥지도, 산등패총 등에서 조사되었다.

6) 鈴木忠司, 1983, 「舊石器人の家と村」, 『季刊考古學』4, 雄山閣  
山岸良二 編, 1991, 『原始・古代日本の墓制』, 同成社

북한지역의 함북 용기 용수동 호반의 砂地에서는 14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인골이 仰臥 伸展葬의 모습으로 동쪽에 머리 방향을 두고 있는 양상으로 출토되었다. 砂地에 토광을 파고 인골을 매장하고 있으나 패총을 파내어 인골을 매장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장 유물은 석부, 석촉, 토기, 방추차 조개팔찌 등이 출토되었다. 함북 송평동에서는 20여기의 무덤에서 양화신전장의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의 한 무덤에서는 인골과 함께 머리 부분에 완형의 彩文土器<sup>7)</sup>가 부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용수동과 송평동의 유적은 그 시대가 불분명하여 신석기시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도 있으나,<sup>9)</sup> 채문토기가 인골에 부장품으로 동반되는 예의 무덤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양상의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울진 후포리유적은 후포4리의 등대산 정상 부위에 있으며, 공사 중 파괴된 양상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도면1) 무덤은 인공적으로 파여진 것이 아니라 동서 4.5m, 남북 3.5m의 장타원형 내지 부정장방형의 토광으로 파악되었으며, 유구의 주변으로 화강암괴가 윤곽선을 이루고 있다. 인골은 서로 뒤엎긴 채로 40여구 이상이 출토되었으며, 매장형태는 二次葬으로 한 무덤에 다량의 인골이 들어 있으므로 습葬인 셈이다. 인골은 장축이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방향도 여기에 준할 수 있다. 매장방법은 육탈된 인골을 다발로 놓은 듯 하며, 일부 伸展葬도 보이나 이것도 이차장에 의한 것이다. 부장유물은 석부로 인골을 덮은 듯한 양상으로 14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으며, 시기를 엿볼 수 있는 토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춘천 교동의 석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신석기시대 후기 이후로 추측하고 있다.<sup>10)</sup>

부산의 범방패총에서는 무덤이 1기가 조사되었고, 다른 핏트에서도 인골편이 수습된 것으로 보아 무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면2) 조사된 무덤의 인골은 최하층에 매장되고 그 위로 패총이 형성되고 있어, 무덤의 주체는 隆起文樣 토기인으로 보인다. 묘광은 확인되지 않았

7) 채문토기는 중국 동북부지방의 채문토기와 관련이 있고, 신석기시대의 종말기에는 함경도에까지 파급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적색 안료를 바른 특징을 가진다. 채문토기는 일반적으로 무문토기와 동반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함경도 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종말기에 유입되어 곧바로 청동기시대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藤田亮策, 1948, 『朝鮮考古學研究』, 高桐書院

榎本杜人, 1980, 『朝鮮の考古學』, 同朋舍

9) 황기덕, 1957, 「함경북도지방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 『문화유산』2

도유호, 1960, 『조선원시고고학』, 과학원출판사, 1960

한영희, 1997, 「신석기문화-신석기시대의 유적」,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0) 국립경주박물관, 1991, 『울진 후포리유적』

으나 패총의 퇴적으로 인하여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본래는 토광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의 머리방향은 서북향을 이루고 있으며, 伸展葬을 한 매장 형태이다. 부장품은 사슴의 견갑골로 만든 골각기 1점, 구멍이 뚫린 연옥제 頸飾 1점이 출토되었다. 인골은 신장 130~140cm 이고 성별 불능이며, 연령은 11세 전후로 판단된다.<sup>11)</sup>

연대도패총은 경남 통영군 연대도에 위치하며, 이 곳에서는 다량의 패각층과 함께 인골이 공반된 14기의 무덤시설이 밀집되어 조사된 集團墓이다.(도면3~5) 1호, 2호, 4호, 7호의 경우 墓壙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개 단면이 수직각이 아닌 半圓形을 이룬 토광이다. 이 외에는 묘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머리방향의 일관성, 인골 하부의 바닥면에 납작한 돌을 깔아주고 토기나 자갈로 인골을 덮은 점, 부장품의 존재 등으로 보아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다. 매장형태는 일반적으로 단독장이나 2호에서는 3인 이상이 매장되는 合葬을 보이고 있다. 매장방법은 伸展葬이나 5호무덤에서는 엎어서 묻는 俯身葬을 하였으며, 인골의 머리방향은 전부 西向을 이루고 있다. 부장유물은 인골에 토기를 덮어 준 흔적이 보이며, 조개팔찌, 결합납 시바늘, 뼈작살, 석부, 숫돌, 토기 등이 다양한 유물을 의도적으로 매장하고 있다. 이 중에 7호, 11호, 14호의 부장유물은 양과 질에서 다른 무덤보다 많고 다양하므로 신분 지위상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육지도유적은 경남 통영군 육지도에 위치하며, 무덤은 9×6~7m의 集石遺構가 있는 내부에서 2개소가 발견되었다. 이 집석유구에서는 각종 토기와 석기, 동물뼈 등이 산포되어 있었다. 1호무덤에서는 성년 남성으로 보이는 이빨과 대퇴부가, 2호무덤에서는 상태가 양호한 남성과 여성 2구 이상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인골은 머리방향이 西向을 이루고 있다.<sup>13)</sup> 그러나 묘광의 흔적은 2호무덤에서만 부정형으로 확인되고 수직선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면을 알게 파내고 인골을 넣은 다음, 작은 돌로 덮은 토광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해안의 산등패총은 통영군 상노대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집석유구와 각종 토기와 석기 등의 유물, 인골 등이 출토되어 조사되었다. 인골이 출토된 곳은 소형의 집석유구가 있는 바로 옆의 패총에서 발견되었으며, 패각의 바닥면까지 굴광하여 인골을 매장하고 있는 이른바 貝殼

11) 부산시립박물관, 1993, 『범방패총 I』

12) 한영희·임학중, 1991, 「연대도 조개더미 단애부 II」, 『한국고고학보』26  
국립진주박물관, 1993, 『연대도 I』

13) 국립진주박물관, 1989, 『육지도』

14) 이러한 양상은 함북 용수동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패총이나 패총의 하부에 무덤이 조성되고, 인골을 매장하는 장법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패총이 음식물을 먹고 버리는 폐기장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동물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장소, 사후에 재생의 염원을 담은 장소로도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墓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sup>15)</sup> 인골은 치아 이외에는 잔존상태는 좋지 않아 全身의 각 부분이 결실된 곳이 많다. 왼팔에는 3개의 조개팔찌를 장착하고 있으며, 두개골은 파손되었으나 대부분 잔존하고 있다. 인골은 東向의 仰臥伸展葬의 상태로 조사되었다.<sup>16)</sup>

## 2) 集石墓

경기 서해안의 부천 시도패총에서 조사되었으며, 積石한 부분은 동서 장축이 165cm, 단축이 145cm정도의 정연한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적석 사이에는 흑색부식토와 숯이 많이 박혀있으며, 적석을 제거한 후에는 깊이 30cm정도의 타원형 토광이 드러났다. 구조상에서 보면 토광에 인골을 넣고 그 위에 나무를 많이 걸친 다음 다시 돌을 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광의 바닥에는 많은 숯과 유기질이 함유된 흑색토가 깔려 있으며, 적석 사이에서 빗살문양 토기가 수편 보이고 있다.<sup>16)</sup> 그러나 내부에서 인골이나 부장품이 발견되지 않아 무덤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시설이 무덤이 아니라 野外爐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유사한 集石遺構는 부산의 금곡동 울리나 동삼동패총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 3) 洞窟墓

북한에서는 평남 상원의 용곡리 동굴에서 신석기시대의 인류화석이 보고되고 있다. 무덤의 양상은 파악되지 않으나 제1동굴의 신석기 문화층에 해당하는 5문화층에서 상악골 1개와 석부, 갈돌,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제2동굴의 신석기 문화층인 2문화층에서는 하악골 2개와 보습, 석부, 석검 등 각종 석기와 토기, 방추차, 골각기, 장신구, 많은 양의 동물뼈 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sup>17)</sup>

남한에서 인골이 출토된 동굴유적은 춘천 교동의 봉의산 자락에서 조사되었다. 이 곳은 남향 산사면의 풍화암반을 인공적으로 파 들어간 동굴 형태의 住居址로 추정되며, 중앙 부위에는 움푹 들어간 爐址도 확인되었다. 이 노지를 중심으로 3구의 인골이 방사상 모양으로 발견

15) 부산수산대 박물관, 1989, 『산등패총』

16) 국립중앙박물관, 1970, 『시도패총』

17) 사회과학출판사, 1986, 『룡곡 동굴유적』

되어 수습되었다. 동굴의 벽과 천장이 그을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보고자도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sup>18)</sup> 주변의 일본 지역에서도 주거를 폐기하고 인골을 방치하는 廢屋墓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sup>19)</sup> 부장품은 인골의 아래 부분에서 석부, 마제석촉 등 각종 석기류와 빗살문양 토기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인골은 仰臥伸展葬이며, 머리를 각각 벽쪽에 두고 발을 중앙에 모이게 하는 방사상의 형태이므로 머리 방향은 동, 서, 남향에 각각 두고 있는 상태이다.<sup>20)</sup>

#### 4) 甕棺墓

옹관묘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옹관은 시신을 넣거나, 혹은 뼈를 넣어 묻는 토기를 말하며, 한반도에서도 선사시대~조선시대까지 全時期에 걸쳐 많이 사용되는 묘제이다. 옹관은 신석기시대에 등장하며, 청동기시대부터 본격화된다. 옹관묘는 주로 小兒用이나 二次葬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옹관묘는 中國에서는 황하 유역 신석기시대 中期의 北辛遺蹟 등에서 甕棺이 출현하며, 後期인 仰韶文化 期の 半坡遺蹟에서는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日本에서는 繩文時代 中期 이후에 주로 關東地方을 포함한 東日本 지역의 유적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그 예가 없었으나 최근 조사된 남강댐 수몰예정지구인 진주 상촌리유적에서 주거지 내부에 옹관을 매장하는 이른바 埋甕이 확인되었다.(도면6)

진주 상촌리유적은 남강댐 상류역에서 사행상으로 曲流하는 강안의 충적대지에 있으며, 부근에는 청동기시대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15기의 住居址와 積石遺構가 조사되었다. 옹관은 14호주거지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옹관은 완형에 가까운 尖底器形의 三角集線文土器가 수직으로 세워진 채 출토되었으며, 주변에 옹관의 상부를 덮었던 토기편과 석부 1점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底部에는 구멍을 뚫어 토기로 메웠으며, 내부에서는 火葬된 성인 인골이 매납되어 있었다. 2호 옹관은 빗살문양토기의 침저기형을 이루고 있으며, 옹관의

18) 『三國志』 魏書 東夷傳 濊條에 「병을 앓거나 죽으면 옛집은 버리고 새집을 지어 산다」는 기록이 있다. 考古學的 조사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주거지 폐기 등의 예가 많이 조사되고 있어, 이러한 기록의 원류는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朝鮮傳』

19) 山岸良二 編, 1991, 『原始・古代日本の墓制』, 同成社

20) 김원룡, 1963, 「춘천교동 혈거유적과 유물」, 『역사학보』20



상부를 덮었던 토기편과 부장된 것으로 석창 2점이 출토되었다. 내부에서는 火葬된 성인 인골이 포함되어 있으나 파손이 심한 편이다.<sup>21)</sup>

시기는 신석기시대 중기로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15호 주거지의 내부, 17호 주거지의 외부, 21호 주거지 내부에서도 인골편이 수습되었다.

또한 이 유적에서는 積石 火葬施設이 조사되기도 하였다.(도면7) 600×450cm 범위의 규모에 하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이 적석 사이에서는 소토와 목탄흔, 탄화된 도토리, 빗살 문양의 토기편이 혼입된 상태이다. 적석을 제거한 수혈유구 내에서는 붉게 소성된 흔적, 강한 열을 받은 석재, 많은 흑색소토가 확인되었으며, 각종 토기와 석부 등도 출토되었다. 이 수혈유구의 중앙 부근에서는 약한 골편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적석유구는 인골을 옹관에 넣기 위한 특수한 火葬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sup>22)</sup>

## 5) 부장유물

신석기시대의 부장유물은 일반적으로 토기류가 많고, 일부 마제석기류가 사용되고 있다. 몇 유적의 인골에서 출토되는 조개팔찌는 부장유물이라기보다는 裝着유물이다. 부장유물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은 북한에서는 함북 용수동에서 토기, 석부, 마제석촉, 함북 송평동에서는 채문토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춘천 교동에서 석부, 마제석촉 등이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남한의 울진 후포리에서는 二次葬을 한 인골 위에 의도적으로 다량의 석부를 놓아 부장하였고, 연대도패총에서는 토기를 깔아 놓은 것으로 보아, 매장시에 의례적인 의식이 행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범방패총에서는 사슴의 견갑골로 만든 골각기와 연옥제 頸飾이 출토되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개팔찌는 남해안의 산등패총의 인골에서 3개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연대도패총에서도 출토되었다. 조개팔찌는 신석기시대에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장신구이다. 본래의 기능은 손목에 끼워 장신구로서 사용하나 혹은 정신적인 관습, 위엄을 나타내는 부장품적인 성격을 띤다. 산등패총과 연대도패총에서는 인골에서 조개팔찌가 장착된 상태로 출토되어 고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산등패총의 인골은 여성 仰臥伸展葬이며 원

21) 이동주, 1997, 「진주 남강댐 수몰지구 상촌리유적」, 『영남고고학』20

심봉근, 1998, 「진주 상촌리유적출토 신석기시대 옹관」, 『문물연구』2

22) 이동주, 2000, 「남강유역의 신석기문화와 일본열도」, 『진주 남강유적과 고대일본』, 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팔에 투박조개의 조개팔찌 2점, 큰배말 조개팔찌 1점이 장착되어 있다. 연대도의 인골에서는 왼팔 부근에서 조개팔찌가 출토되었다. 일본의 西北九州에서도 對馬島の 佐賀, 北九州의 新廷, 山鹿貝塚에서 출토 예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山鹿貝塚에서는 출토인골 18구 중에 성인여성 7구가 조개팔찌를 장착하고 있어, 日本내에서 가장 많은 장착율을 보이고 있다.<sup>23)</sup> 조개팔찌가 인골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한반도의 남해안지역과 對馬島를 둘러싼 西北九州지역에 주로 형성되어 있고, 이는 어로구, 토기문화의 교류 범위와도 중복된다.<sup>24)</sup> 또한 양 지역에서는 조개팔찌의 제작방법이 안쪽 孔面을 세밀하게 때려 내는 정도로 研磨는 하지 않으며, 장착 부위에 있어서도 왼팔 손목에 집중하고 있어 남해안과 西北九州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대도패총에서는 조개팔찌, 결합뉘시바늘, 뼈작살, 석부, 숫돌, 토기 등의 유물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중에 7호, 11호, 14호의 부장유물은 양과 질에서 다른 무덤과 구분되므로, 신석기시대에도 신분과 지위상의 차이, 즉 계층화 사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다양성에 의해 빈부나 신분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은 주변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부장품인지 아니면 의례에 사용한 것인지 불분명한 유물도 존재한다. 옥지도유적의 경우는 무덤의 주변에 있는 集石遺構에서 각종 토기와 석기, 동물뼈 등이 산포되어 있어 부장품인지 확실하지 않고, 진주 상촌리유적의 옹관도 주변에서 토기편과 석부, 석창이 있어 부장품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다. 부장품이 무덤에서 직접 출토하지 않고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해도 이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매장 의례에는 死者를 매장하기 전후와 안치 시에 각각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례행위는 무덤의 주변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

### Ⅲ. 신석기시대의 원시신앙과 사후세계관

#### 1. 원시신앙

원시신앙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한반도에서 비교적 많이 성행한 것은 채집·수렵의 안

23) 福岡縣芦屋町 山鹿貝塚調査團, 1972, 『山鹿貝塚』

24) 木村幾多郎, 1992, 「貝輪と埋葬人骨」, 『季刊考古學』, 38, 雄山閣

전과 풍요로운 生業을 위한 자연물에 대한 기원, 출생에서부터 성년을 거쳐 죽을 때까지의 통과례, 친족집단 중심의 조상숭배 사상 등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원과 의례, 사상에는 반드시 어떤 대상자에게 물건을 만들어 바치거나, 의례에 사용되는 주술구 등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도구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신석기시대에도 죽음과 관련하여 원시 신앙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은 죽은 후에도 연관되어 의례적인 상·장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석기시대의 신앙적인 의미가 내포된 유물은 조각품, 암각화, 기원과 호신을 위한 도구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 보호나 신앙 혹은 종족을 위한 목적이 있어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이 아닌 주거지나 제사의 장소 등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서포항유적에서는 사람, 망아지, 뱀 등의 골각 조각품이 발견되었고, 농포동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人物, 犬頭, 鳥形의 골각 조각품이,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원시신앙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었다.<sup>25)</sup> 이 중에서도 원시신앙의 측면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은 서포항유적으로 사람, 망아지, 뱀 등이 보고되어 있다.

서포항 3기층에서는 사슴뼈로 조각한 인물상이, 4기층에서는 짐승뼈를 납작하게 갈아 顔面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얼굴을 형상화하였다. 이 밖에도 농포유적에서는 흙으로 빚은 土偶와 같은 여성상이, 오산리유적에서는 인물상이, 동삼동패총에서는 패각에 구멍을 뚫어 눈과 입을 형상화한 것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사람과 인물상은 신앙대상이 되고 있는 祖上神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인물이 새겨진 도구는 지금도 東北아시아의 일부 종족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며, 수렵의 성공이나 자기 보호, 혹은 수렵과 어로를 상징하는 조상신을 새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근래의 동북아시아의 민족학적인 보고에서도 수렵의식이나 주술신앙에 있어서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같은 성격의 것이 이용되고 있어, 원시신앙의 성격을 추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짐승을 형상화한 것은 망아지, 개, 새 등의 조각품이 보고되고 있다. 서포항유적 3기층에서 망아지로 보고된 것은 사슴 녹각으로 동물의 머리를 조각한 것이며, 농포유적에서는 개의 머

25)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4집 과학원 출판사, 1957, 「청진 농포리 원시유적 발굴」, 『문화유산』4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조선고고학전서-원시편』

리부분을 형상화 한 것, 곱돌로 만든 새의 머리부분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짐승은 당시 종족들의 상징적인 동물이거나, 아니면 수렵대상의 주술신앙과 관련되는 조각품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조각품은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수렵신앙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짐승의 조소품들은 주로 머리부분이 많고 여기에 거의 모두 구멍이나 홈이 있어 몸에 차고 다닐 수 있게 하여 수렵신앙과 호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생각된다.

서포항유적 3기층에서 출토한 뱀은 멧돼지 이빨을 갈아서 조각한 것으로 부러진 상태이다. 뱀과 관련한 유적은 바이칼호 주변의 암각화, 연해주 지역의 암각화 등의 유적에서 관련된 것이 발견되고 있고, 승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예는 몽고지방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일본 지역에서는 繩文時代 中期의 東日本 지역의 토기 器面에 뱀과 관련한 장식이 많이 시문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뱀과 관련한 유적이나 유물은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고, 서포항유적의 뱀 조각은 토템의 상징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아시아적인 시야에서 원시신앙과 관련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sup>26)</sup>

## 2. 사후세계관

구석기시대 이후 사후세계관은 영혼불멸관념, 영원회귀관념, 재생관념, 자연숭배관념 등 원시 신앙의 차원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해된다.<sup>27)</sup> 인간은 죽음을 再生으로 역전시키려는 여러 가지의 관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죽음에 관련한 의례, 상징적·연기적인 행위 등을 가지고 상·장례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는 정착생활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활동범위의 공간적 영역이 넓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철 바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설세없이 움직여야 했기에, 죽음으로 인한 무덤의 축조에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新石器人들의 묘제는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동기시대 이후의 다양화되는 묘제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 시기에는 地上墓制나 얇은 土壙墓(土葬墓)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에는 한반도에서도 함북 용수동 울진 후포리 통영 연대도 등지에서 집단묘가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

26) 황용휘, 1983, 「신석기시대-예술과 신앙」, 『한국사론』12, 국사편찬위원회  
 한영희, 1997, 「신석기문화-의식·신앙 및 예술」,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27)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I』, 도서출판 밀알, 1994

아 신석기시대 후기 이후부터는 점차 농경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정착 단계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한반도에서 출토된 인골의 양상에서 보면, 신석기인들은 후기구석기인들과는 크기와 생김새가 다르게 나타나며, 신석기인들은 중국 북부의 龍山文化, 仰韶文化의 인골과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sup>29)</sup> 또한 한반도 동북부의 서포항유적과 가까운 연해주의 보이스만 패총에서 출토된 인골도 고아시아족의 계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0)</sup>

현 상황에서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죽음관에 대한 양상은 다음과 같은 몇 예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석기시대에는 死者를 묻을 때의 머리를 두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다. 연대도패총에서의 머리 방향은 西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부근 상노대도의 산등패총에서는 東向이며, 북한의 함북 용수동에서도 東向을 보이고 있다. 울진 후포리는 北向이며, 범방패총은 西北向을 가리킨다. 강원도의 춘천 교동에서는 인골 3구가 제각기 다른 동, 서, 남향의 방사상으로 향하고 있어 한반도의 각 지역이 통일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현 자료로 본다면, 신석기시대에는 장례시에 頭向문제에 대한 의례적, 종교적인 의식은 각자의 유적 내에서 일정한 규범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방법에 있어서 통영 연대도에서 부신장이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한반도 내에서는 양와신전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와신전장은 토광묘가 묘제에 있어서 기본을 이루듯이, 매장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주변국에 있어서 매장방법은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중국은 양와신전장, 일본은 굴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춘천 교동, 울진 후포리, 통영 연대도, 육지도 등에서 보이듯이 合葬의 풍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에는 매장형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인씩 묻는 單獨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연대도패총의 2호에서는 3인 이상이 매장되고 있어 合葬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合葬의 풍습은 시베리아의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그 원류가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합장은 주변국에서도 부부, 가족, 친족단위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황하 중류역 仰韶文化期の 元君廟墓地에서는 25인이 합장

28) 집단묘의 성립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농업 경제의 진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유럽, 북아메리카, 서아시아, 인도, 중국 등의 지역에서 집단묘가 확립되는 것은 명확히 농업 경제가 시작되고 나서이다.

29) 박선주, 1997, 「신석기문화-인골의 출토」,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30) 제2회 서울 암사동 선사유적지 학술 심포지움(2000년 10월)에서 러시아 사회과학원 극동지부 구스민 연구원의 발표에 의한 것이다.

31)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 1983, 『元君廟仰韶墓地』

된 경우도 있다.<sup>31)</sup>

넷째, 이 시기에 이미 신분, 지위의 高下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도패총에서는 貝輪, 결합납시바늘, 뼈작살, 석부, 숫돌, 토기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이 중에 7호묘, 11호묘, 14호묘의 부장유물은 양과 질에서 다른 무덤과 현저하게 구분되고 있으므로 신분, 지위상의 차이가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다양성에 의해 빈부나 신분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은 주변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예로 중국 신석기시대 大汶口文化期の 집단묘에서는 대형무덤의 경우 목곽이 설치되고 토기, 석기, 장식품 등 100여점 이상의 다양한 부장품이 출토되기도 하나, 소형무덤에는 관이 없고 부장품이 소량 출토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신분의 차이는 일본의 繩文時代 後期이후의 시기에도 부장품의 출토 양상에서 추정할 수 가 있다. 일본의 繩文時代 後期和 晩期에는 그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서 부장품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부장품은 귀걸이, 팔지 등 소재가 다양한 장신구류가 많고 소재나 형상에 있어서 다양해져 격차의 뚜렷함이 증대하며, 칠제품과 토기류, 石棒, 石劍, 土偶 등도 많이 출토된다. 특정한 지위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과 격차가 있는 장신구나 부장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층화된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sup>33)</sup>

다섯째, 신석기시대 中期에 이미 火葬의 풍습이 있어 二次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火葬을 위해 따로 積石 火葬施設을 두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진주 남강댐 수몰지구인 상촌리유적에서는 주거지내 2기의 옹관 내부에서 火葬된 성인 인골이 매장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火葬의 풍습은 불교가 도입하면서 삼국시대에 많이 행해졌으며, 고려시대에까지 연장되고 있다. 불교 유입 이전에도 청동기, 철기시대에도 火葬 풍습의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촌리유적의 조사로 인하여 火葬을 하는 二次葬의 풍습이 신석기시대 中期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지역에서도 繩文時代 後期 이후에 火葬의 수법이 많이 확인되고 있어,<sup>34)</sup> 주변국에서도 火葬에 의한 二次葬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변국의 신석기시대의 옹관묘는 무덤이 조성되는 지역에 옹관을 매장하는 甕棺葬과 주거지 내부나 그 주변에 묻는 埋甕의 형태가 있는데, 진주 상촌리유적의 火葬된 성인 인골의 옹관은 주거지 내부에 매장하는 이른바 埋甕의 형태이다. 埋甕의 사후 관념은 주거가 모친 숭배사상의 의미를 가져 재생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매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35)</sup>

32) 文物出版社, 1974, 『大汶口-新石器時代墓葬發掘報告』

33) 中村大, 2000, 「採集狩獵民の副葬行爲」, 『季刊考古學』70, 雄山閣

34) 橋口達也, 1992, 「大形棺成立以前の甕棺の編年」, 『九州歴史資料館論文集』17

35) 大塚和義, 1979, 「繩文時代の葬制」, 『日本考古學を學ぶ(3)』, 有斐閣選書

## IV. 주변국 문화권의 양상

### 1. 中國의 경우

중국 신석기시대는 범위가 넓은 지역이어서 각 문화권에 있어서 묘제와 사후세계관의 양상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워낙 넓고, 시기의 폭도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므로 한반도 문화권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황하 문화권과 중국 동북 지방의 중요한 몇 개의 묘제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sup>36)</sup>

중국 황하 유역에서는 신석기시대의 中期에 이미 씨족의 집단묘지가 성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묘지는 일반적으로 취락의 근처에 군집해 있다. 황하 중하류인 裴李崗遺蹟에서는 장방형 토광묘 114기가 조사되었는데, 묘지가 규칙적인 배열로 밀집되어 있다. 통상 한사람씩 매장되거나 합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앙와신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부장품은 적은 편이지만 유물 20점 이상을 넣은 무덤도 있다. 부장품은 토기와 석제품이 출토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後期の 仰韶文化期에 속하는 황하 상류역의 半山類型的 유적에서는 묘지의 발굴 예가 많아 400기를 넘는다. 묘지의 형태는 토광묘이며, 석관묘도 존재한다. 매장방법은 橫臥屈葬의 이차장이 주류를 이루며, 앙와신전장도 있다. 부장품은 彩陶 등 토기류, 석제 생산용구 등이 주류를 이룬다. 馬廠類型에 속하는 柳灣遺蹟에서는 872기의 묘지가 발굴되었으며, 주로 토광묘이다. 매장방법은 앙와신전장, 橫臥屈葬, 俯身葬, 매장형태는 이차장이 있고, 소아도 성인에 대한 것과 같은 의례방법으로 매장되고 있는 것이 많다. 부장품은 彩陶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석기류이며, 많은 묘지에서 밤을 넣은 甕이 부장품으로 출토되기도 한다. 묘지의 빈부의 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게는 1점, 많게는 90여점 이상의 부장품이 매납되고 있다. 동시에 馬廠類型的 유적에서는 순장자가 같이 출토되는 묘지도 있다.

황하 중류역 仰韶文化期の 半坡遺蹟은 환호에 둘러진 취락과 250기의 집단묘지가 조사되었다. 무덤은 성인묘와 소인묘로 구분되며, 성인묘는 취락 북측의 집단묘지에 자리한다. 성인묘는 토광묘이며, 앙와신전장이 가장 많고 俯身葬과 屈葬도 있다. 부장품은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소인묘는 甕棺葬이 주류를 이루며, 대부분이 취락 내에 존재한다. 그 형태는 단옹과 합구

36) 張之恒, 1988, 『中國新石器文化』, 南京出版社  
 飯島武次, 1991, 『中國新石器文化研究』, 山川出版社  
 大貫靜夫, 1998,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同成社  
 鄭漢德, 2000, 『中國考古學研究』, 學研文化社

식 옹관이 있다. 元君廟墓地에서는 57기의 수혈묘가 발굴되었다. 묘역내의 묘광의 배열이 정연하고 묘광은 장방형 내지 정방형을 이룬다. 이중 약 40여기가 합장인데, 일반적으로 4인을 합장하며 많은 것은 25인이 합장하고 있다. 대부분이 2차합장묘이며, 그 중에는 1차 합장묘도 존재한다. 半坡類型문화에는 1차 매장도 보이지만 대부분 인골을 매장한 후에 다시 매장하는 2차합장묘가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황하 하류의 신석기시대 後期인 大汶口文化期에 속하는 山東省에서 발견된 大汶口遺蹟 제1차 조사에서 133기의 토광묘가 발굴되었다. 이 중에는 대형묘지의 묘광 안에 원목을 넣은 목곽의 형태도 14기나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명씩 매장하는 단독장이지만, 부부 합장, 유아와 성인이 합장되는 경우도 있다. 매장형태는 양와신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側臥伸展葬, 俯身葬, 屈葬이 보인다. 인골은 성인 남녀에서 두개골의 변형과 拔齒가 확인되고 있다. 부장품의 대부분은 토기이며, 석기, 골각기, 玉器, 獸骨이 있다. 부장품이 없는 묘지도 많으며, 60점이 넘게 부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무덤은 규모와 부장품의 수량에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빈부나 신분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황하 상류의 龍山文化期에는 秦魏家遺蹟에서 138기의 묘지가 발굴되었다. 매장방법은 단독장과 합장이 있고, 기본적으로 신전장이 주류를 이룬다. 부장품은 토기류, 석기류, 골각기, 銅器, 다량의 돼지 하악골이 존재한다. 황하 중류의 龍山文化期인 廟底溝遺蹟에서는 145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는데, 정연하게 배치된 상태이다. 굴장 2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독의 伸展葬이며, 머리방향은 동향을 이루고 있다. 부장품이 적은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陶寺遺蹟에서는 405기의 토광묘가 발견되었으며, 대, 중, 소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형의 묘에는 목관의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부장품은 토기, 목기, 옥기, 골각기 등 매우 풍부하다. 황하 하류의 龍山文化期의 묘지는 토광묘로 단독 신전장이 주류를 이루며, 俯身葬, 屈葬도 보인다. 소수의 대형묘에는 목곽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부장품은 토기류, 옥기류, 돼지의 두개골 등이 출토되나 수량은 많지 않다.

중국 동북지방의 新開流遺蹟에서는 30여기의 묘지가 말굽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일차장에는 신전장과 굴장이 있으며, 이차장에는 單身葬과 합장이 있다. 부장품은 수렵, 어로구, 가공구 등이 있으며, 일차장에 풍부하지만 이차장에는 빈약한 편이다. 연해주의 보이스만패총에서도 5기의 묘지가 環狀으로 배치되어 있고, 모두 側臥屈葬이다. 출토된 인골의 양상에서 보면, 신장은 165cm 정도이고, 고아시아족의 계통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장품은 어로구가 많은 편으로 新開流遺蹟에 공통되는 면이 있다. 紅山文化期에 속하는 牛河梁遺蹟群에서는 제단과 積石塚, 女神廟 등이 조사되었다. 적석총은 4개소의 지점에서 조사되었으며, 돌을 잘라서 계단상



으로 조영하고 있다. 적석총의 중심부 이외에서도 소형묘가 발견된다. 단독장이 주류를 이루며, 소형묘에는 이차장과 합장도 있다. 小河沿文化期の 南臺地遺蹟에서는 77기의 묘지가 조사되었다. 토광묘가 대부분이며, 土洞墓도 존재한다. 단독장이 기본을 이루며, 樺皮를 감은 양와 굴장이다. 매장 전에 불을 피운 흔적이 있으며, 인골의 일부가 탄 것도 있다. 부장품은 紅山文化期에서는 玉器가 사용되나 여기에서는 토기가 사용되며, 남성묘에는 有孔石斧나 骨製刀子, 여성묘에는 방추차가 부장되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황하 유역에서 신석기시대의 中期에 집단묘지가 성립이 되며, 무덤의 종류는 토광묘가 주류를 이룬다. 토광묘는 후기에까지 기본 형태가 이어진다. 매장형태는 주로 단독장, 매장방법은 양와신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後期 전반의 仰韶文化期에 이르면 무덤종류, 매장형태, 매장방법 등이 다양해진다. 황하 상류역의 半山類型 유적에서는 석관묘가 나타나며, 이차장의 橫臥屈葬이 주류를 이룬다. 馬廠類型에 속하는 柳灣遺蹟에서는 이차장, 양와신전장, 橫臥屈葬, 俯身葬이 있고, 이 시기에는 묘지에 빈부의 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순장자가 같이 출토되는 묘지도 있다. 황하 중류역 仰韶文化期の 半坡遺蹟에서는 소인묘에서 단웅과 합구식의 甕棺葬이 많이 조사되기도 한다. 황하 하류의 大汶口遺蹟에서는 성년 남녀에서 두개골의 변형과 拔齒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新開流遺蹟에서는 묘지가 말굽 형태로 존재하며, 매장형태는 단독장과 합장, 이차장, 매장방법은 신전장과 굴장이 있다. 紅山文化期에 속하는 牛河梁遺蹟群에서는 적석총이 조사되었으며, 적석총의 중심부 이외에서도 소형묘가 발견되어 집단묘적인 성격을 띤다. 小河沿文化期の 南臺地遺蹟에서는 土洞墓도 존재하며, 매장방법은 樺皮를 감은 양와굴장인데, 이러한 양상은 日本 北海道에서도 보이고 있다.

## 2. 日本의 경우

繩文人的 사후세계관은 繩文時代의 각 시기, 지역에 따라서 장법과 부장유물의 성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繩文時代에 관하여 묘제와 사후세계관의 개요를 각 시기별로 개략해 보기로 한다.<sup>37)</sup> 繩文時代 早期에는 長野 枋原, 愛媛 上

37) 大塚和義, 1979, 「繩文時代の葬制」, 『日本考古學を學ぶ(3)』, 有斐閣選書  
鈴木公雄 編, 1988, 『繩文人の生活と文化』, 講談社  
春成秀爾, 1992, 「繩文時代-墓」, 『日本人の人類遺蹟』, 東京大學出版會  
中村大, 2000, 「採集狩獵民の副葬行爲」, 『季刊考古學』70, 雄山閣

黑岩 등 동굴내에 매장한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묘광을 파고 그 안에 인골을 굽혀서 매장하는 屈葬이 이용되고 있는데, 長野 枋原동굴에서처럼 성인 남녀 5구의 인골이 굴장으로 매장되어 있다. 부장품은 토기와 각종 석기류 등 일상용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장신구류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前期와 中期에는 정주생활이 보편화된 관계로 무덤이 취락에 근접하여 조영되며, 100기 이상의 출토 예도 많다. 東日本에서는 環狀으로 배열한 주거군의 내부에 무덤을 조성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양상은 晩期까지 이어진다. 매장방법은 굴장이 일반적이지만, 폐기된 주거지에 매장하는 경우는 신전장도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西日本에서는 취락과 관련되는 유적은 적은 편이다. 前期의 九州 大分縣 枋洞穴에서는 여성 인골을 절단하여 매장하는 특이한 예가 있으며, 九州의 福岡縣 山鹿貝塚의 한 무덤에서는 3구의 인골이 동시에 매장되는 合葬도 있다. 이 시기의 부장품은 토기와 각종 석기류 등 일상용품 이외에도 희소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만든 유물, 즉 塊狀귀걸이, 管玉類, 猪牙製垂飾, 鹿角製腰飾, 硬玉大珠, 조개팔찌 등의 장신구가 본격화된다. 또한 中期에는 甕棺葬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中期부터는 매장이 취락내의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묘역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취락의 중심부분에 원형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위에 環狀의 주거군이 밀집되고 있는 양상이다. 묘역은 주거군의 외측 주변에 저장용 구덩이군, 건물군 등의 시설과 같이 일정한 군집을 이루며 배치되고 있다.

後期에는 東北, 北陸地方을 중심으로 配石墓나 石棺墓가 발달한다. 또한 취락의 중앙에 무덤이 조성되어 있고, 그 외측을 둘러싸고 주거지 등이 동심원상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秋田縣 大湯遺蹟의 配石墓에는 무덤 위에 標識가 되는 돌을 세운 50기 이상의 무덤이 二重의 環狀으로 배열되어 있다. 매장방법은 굴장이 일반적이지만 신전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繩文後期 이후의 유적인 愛知縣 吉胡貝塚에서는 300구가 넘는 인골이 발굴되었으나 토광을 파고 매장하는 일차장의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洗骨을 한 이차장과 火葬을 한 흔적이 있는 인골도 조사되어 매장 방법은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북해도의 美美四遺蹟에서는 두터운 樺皮로 감은 屈葬 인골이 출토되기도 하며,<sup>38)</sup> 중국 小河沿文化期の 南臺地遺蹟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부장품은 장신구류가 많고 종류가 많아져 소재나 형상에 있어서 다양해진다. 귀걸이, 팔찌 등 소재가 다양한 장신구류와 칠제품과 토기류, 石棒, 石劍, 土偶 등

38) 이러한 양상은 시신을 일정 기간 지상에 안치하여 매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風葬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도 많이 출토된다. 이러한 부장품의 양상은 晩期까지도 계속된다. 이 시기에 북해도에서는 周堤墓<sup>39)</sup>가 조영되며, 千歲市 키우스유적에서는 직경이 70m가 넘는 것도 있다. 周堤墓의 부장품은 석봉, 석부, 석축, 옥 등 풍부한 편이며, 취락지와는 다른 지역에 만들어진다.

晩期에는 동일본의 경우 많은 유적에서 인골이 발굴되고 있다. 부장품은 장신구로서 귀걸이, 목걸이, 조개팔찌 등이 발달하는데, 몸에 장착하고 경우는 매우 적다. 매장방법은 굴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信越地方에서는 火葬을 포함한 상·장례와 관련한 대규모의 配石遺構가 조사되기도 한다. 서일본의 경우도 동일본과 같이 많은 유적에서 인골이 발굴되고 있으며, 굴장이 많지만 신진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아를 옹관에 매장하거나 東海地方에서는 이차장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繩文時代 早期에는 동굴 내에 매장한 경우가 많고, 굴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굴장은 일반적으로 繩文 전시기에 주로 이용되는 매장형태이다. 前期와 中期에는 무덤이 취락에 근접하여 조영되며, 집단묘가 형성되고 있다. 동일본에서는 環狀으로 무덤을 조성한 경우가 있고, 이러한 양상은 晩期까지도 이어진다. 中期에는 甕棺葬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後期에는 東北, 北陸地方을 중심으로 配石墓나 石棺墓가 발달하며, 북해도에서는 거대한 周堤墓가 조영되기도 한다. 또한 취락의 중앙에 무덤이 조성되기도 하며, 매장형태는 이차장과 火葬을 한 경우도 있으며, 매장방법에 있어서 북해도에서는 樺皮를 감은 양외굴장도 있다. 晩期에 信越地方에서는 火葬을 포함한 상·장례와 관련한 대규모의 配石遺構가 조사되기도 하며, 유아를 옹관에 매장하거나 東海地方에서는 이차장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繩文時代에는 死者를 매장하는 장소의 선택은 그들이 생전에 생활했던 장소에 근접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繩文時代 中期 이후에는 생전에 생활했던 공간과 완전히 일체화되는 사후세계관이 성립되고 있다. 繩文時代의 묘제는 전반기에는 혈연 중심으로 매장이 이루어지지만 후반기에는 세대별로 매장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 後期和 晩期에는 그 이전의 시기와 비교해서 부장품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부장품에 보이는 격차의 뚜렷함이 증대한다. 묘역을 정하고 집단묘를 만들거나 인골 머리방향의 일정한 규칙도 인정되고 있으며, 머리방향과 拔齒에 있어서도 대응관계가 인정된다.<sup>40)</sup> 중국에서의 발치의 풍습은 大汶

39) 이 周堤墓는 지면을 등굴고 크게 파내고, 파낸 흙을 주위에 제방처럼 쌓아 그 내측에 5~20기의 무덤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대한 매장시설이다.

40) 林謙作, 1977, 「繩文期の葬制」, 『考古學雜誌』62, 63

春成秀爾, 1982, 「繩文社會論」, 『繩文文化の研究』8, 雄山閣

口遺蹟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성년식 등과 관련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폭넓게 의식이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아의 무덤이 증가하고 무덤에 넣는 부장품에 남녀의 성이 구분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에는 특정한 지위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과 격차가 있는 장신구나 부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층화된 사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sup>41)</sup>

## V. 맺음말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묘제는 土壙墓, 洞窟墓, 積石墓, 甕棺墓 등이 있으나, 이 묘제에서 의례와 사후세계를 구체적으로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만큼 남겨진 고고학자료는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유물과 유구에 나타난 정보의 질과 양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전반기에는 정착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렵과 채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철 바뀌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설새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러기에 죽음으로 인한 무덤의 축조에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 가장 간단한 토광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에는 한반도에서도 함북 용수동 울진 후포리 통영 연대도 등지에서 집단묘가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후기 이후부터는 점차 농경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정착 단계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집단묘는 중국에서는 황하 중하류의 裴李崗遺蹟에서와 같이 신석기시대의 中期에 형성되기 시작하며, 일본에서도 繩文時代 前期부터 주거지군과 인접하여 규칙적으로 조영되고 있어, 현 상황에서 보면 주변국이 한반도보다는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묘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그리 다양하지는 않으나, 많은 부분이 동북아시아의 묘제 및 사후세계관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현 자료에서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사후세계관에 대한 몇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에는 死者를 묻을 때 머리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연대도패총의 西向, 산동패총의 東向, 북한의 함북 용수동의 東向, 울진 후포리의 北向, 범방패총의 西北向, 춘천 교동의 3구 방사상 등 한반도의 각 지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신석기시대에 한반도에서는 장례시에 頭向문제에 대한 의례적, 종교적인 의식은 각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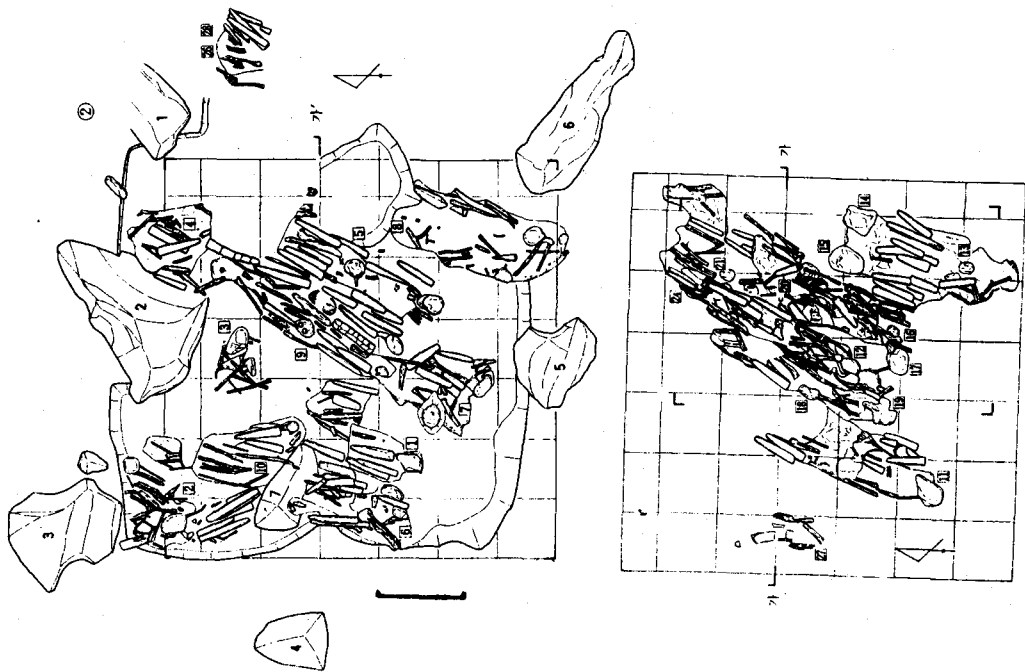
41) 中村大, 2000, 「採集狩獵民の副葬行爲」, 『季刊考古學』70, 雄山閣

유적 내에서 일정한 규범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주변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매장방법에 있어서 연대도에서 俯身葬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仰臥伸展葬이 주류를 이룬다. 주변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국이 양와신전장, 일본은 屈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에서 굴장은 청동기시대부터 확인되고 있다. 셋째, 매장형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單獨葬이 주류를 이루나, 통영의 연대도나 옥지도, 울진 후포리에서와 같이 合葬의 풍습도 존재한다. 合葬의 풍습은 시베리아의 구석기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도 부부, 가족, 친족단위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장은 대부분 단독으로 묘역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장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그 중 몇이 합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신석기시대에는 연대도패총에서와 같이 계층화 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의 규모나 부장품의 다양성에 의해 빈부나 신분의 차이가 반영되고 있음은 주변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황하유역의 柳灣遺蹟, 大汶口遺蹟 등지의 무덤과 부장유물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繩文時代 後期와 晩期 유적의 부장품에서 계층화가 형성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한반도에서도 진주 상촌리 옹관에서와 같이 火葬의 풍습이 있어 二次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지역에서도 繩文時代 後期 이후에 火葬의 수법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상촌리의 火葬된 인골의 옹관은 주거지 내부에 매장하는 이른바 埋甕의 형태인데, 이러한 양상은 황하 중류역 半坡遺蹟의 甕棺葬과 유사하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사후세계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시대의 사후세계관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묘제에 대한 한정된 일반적인 조사보다는 무덤이 포함된 주변 생활유적의 조사와 함께 당시의 文化·社會相의 연구, 각 묘제의 기원, 기능, 주변 묘역과의 관련성 등의 연구가 공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석기시대의 상·장례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당시 사회의 종교의식과 사후세계관의 양상도 파악이 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신앙, 정신세계, 가족 구성, 집단의 위계질서, 사회구조 등에 대해서도 類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考古學界에서도 文化, 社會相의 복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발굴조사로 인하여 지금보다 더욱 많은 자료가 축적된다면 新石器人的 풍속, 신앙, 상·장례문제 등의 사후세계관의 양상이 보다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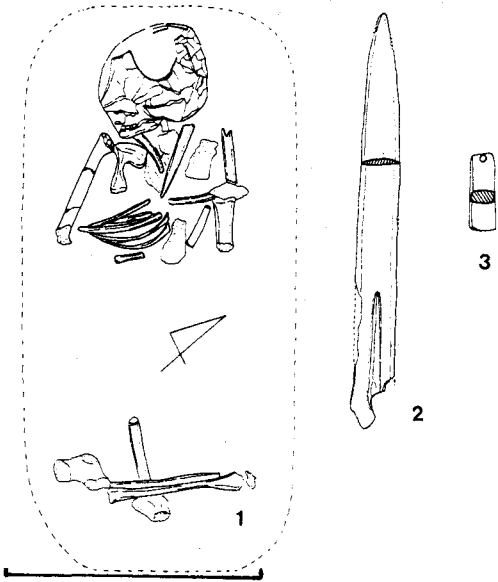
종류	유적	무덤	인골수	매장형태	매장방법	두향	부장유물	비고
토광묘 (토장)	용수동	14기	14구	단독장	앙와신전장	동향	조개팔찌, 석부, 석촉, 방추차, 토기	패각묘 2기
	송평동	20여기		단독장	앙와신전장		채색토기 등	
	후포리	1기	40구이상	합장 이차장	일부신전장	북향	다량의 석부	자연토광
	범방	1기	1구	단독장	신전장	서북향	골각기, 경식	
	연대도	14기	15구이상	단독장 합장	신전장 부신장	서향	조개팔찌, 석부, 숫돌, 토기편, 작살, 뉘시바늘	
	육지도	2기	3구이상	단독장 합장	신전장(?)	서향	집석에서 토기편, 석기, 동물뼈 등 출토	
	산등	1기	1구	단독장	앙와신전장	동향	조개팔찌	패각묘
집석묘	시도	1기	없음			집석사이에서 토기편		
동굴묘	옹곡리		3구					
	교동		3구	합장	앙와신전장	동, 서, 남	석부, 석촉, 토기류	주거지 폐기
응관묘	상촌리	2기	2구	이차장 (화장)			주변에서 토기, 석기류	주거지 내

표1. 신석기시대 묘제의 성격 및 부장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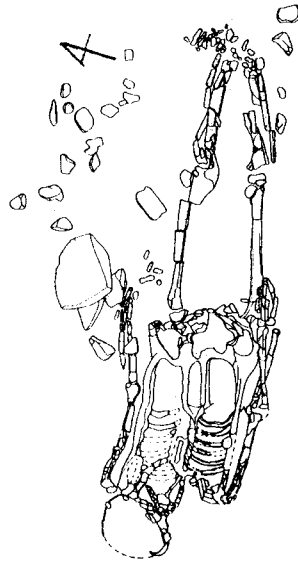


도면 1. 후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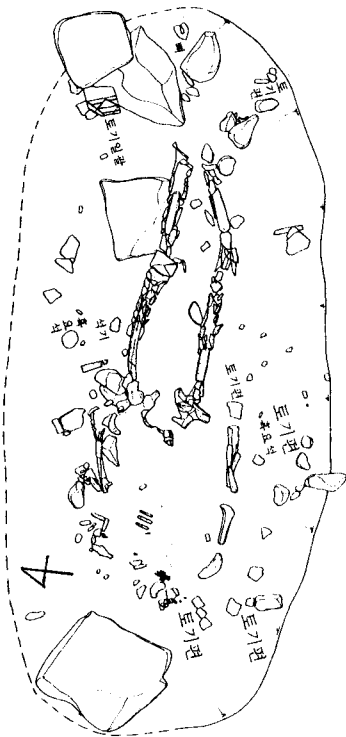
Scale 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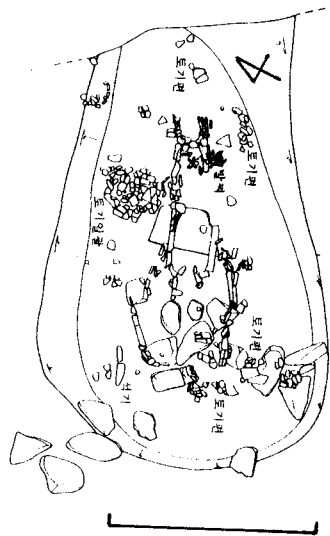
도면 2. 범방



도면 3. 연대도 1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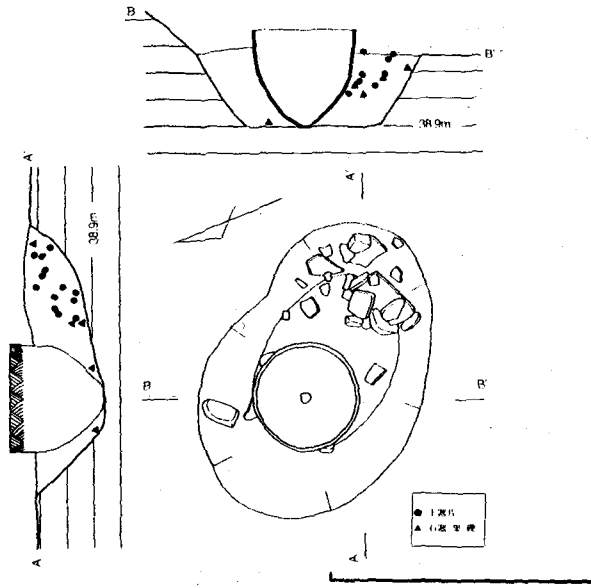


도면 4. 연대도 4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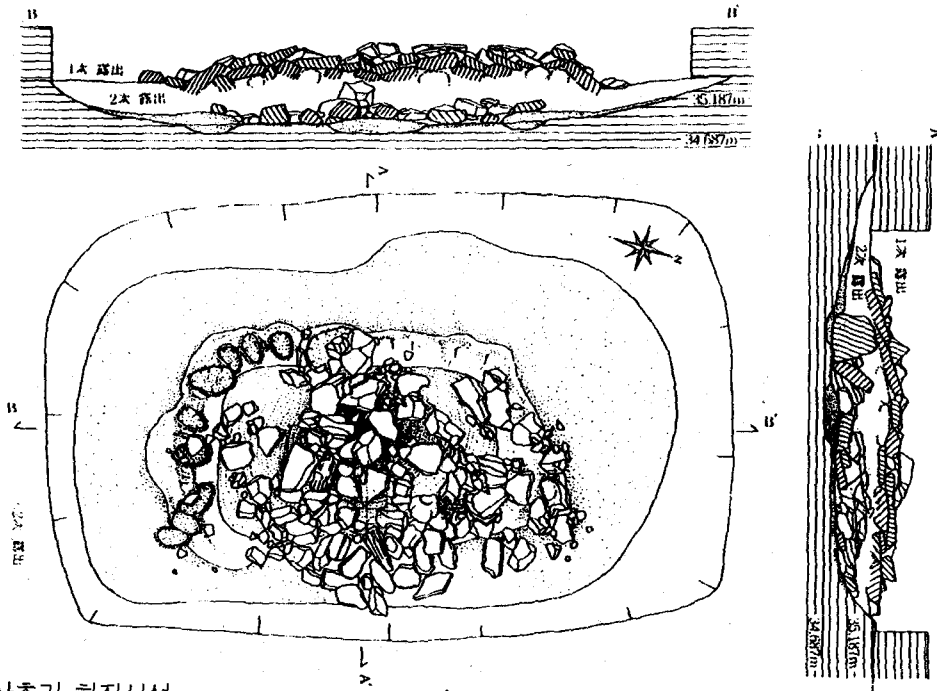


도면 5. 연대도 7호묘

Scale 1m



도면 6. 상촌리 1호옹관



도면 7. 상촌리 화장시설

Scale 1m



## The thought of Death and the Tombs in the Neolithic Age of the Korean Peninsula

Lee, Sang-kyun

Hunting and gathering was the primary way to live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neolithic age. People were not able to invest much labor in making their tombs because of so much activity for their living. Small tombs like the shallow pit tomb(土壙墓) were popular in those days.

During the neolithic age the heads of the dead bodies were placed in various direc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upine burial lay on one's back(仰臥伸展葬) was a general method to bury the dead. A single body was usually buried in a tomb but burying together was sometimes practiced. The dimensions of tombs and the funerary objects were diversified according to the status and wealth of the dead. And they often practiced the cremation